

조선 후기 연초문화와 철제입사담배합의 양상

김세린

I. 머리말

金世麟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문학박사
한국공예사

조선시대 입사(入絲) 공예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종 중 하나는 연초문화(煙草文化)와 관련된 기물들이다. 연초문화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의 행위와 흡연을 할 때 사용한 도구, 흡연을 즐겨 했던 이들이 흡연 또는 담배를 주제로 짓거나 즐긴 시, 회화, 문학작품 등 담배와 흡연을 둘러싼 제반 행위와 활동, 향유문화를 모두 포괄한다.

17세기 양난(兩難)을 전후로 중국, 일본을 거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는 흡연 행위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연기의 형태, 색, 특유의 향, 휴대성 등을 바탕으로 취미이자 기호품으로 조선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도교의 신선과 신령, 일상에서의 탈피 등 다양한 의미가 더해져 사용되었고, 왕실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넓은 소비의 폭을 토대로 조선 말까지 유행했다.

조선 사회 내 연초문화의 정착과 유행은 여러 계층, 장소, 용도로 사용된 흡연

* 필자의 최근 논저: 「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고려시대 입사공예품의 장인과 기술」, 『한국중세고고학』 5, 2019; 「고려 후기 입사공예의 전개와 元과의 상호연관성」, 『미술사학연구』 298, 2018.

도구의 다변화와 발달을 수반했다. 금속(金屬), 도자(陶磁), 목칠(木漆), 석(石), 직물(織物) 등 다양한 재료로 도구의 제작이 이루어져, 조선 후기 생활 공예품의 한 축이 되었다. 흡연 도구는 일상 생활공간은 물론 휴대까지 겸비해야 하는 기물이었기에, 실용성이 필수 덕목이었다. 또 사용하는 이들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문양들이 기물 표면에 장식되었다. 이 중 내구성이 높은 재료의 장점과 다양한 장식기법으로 문양의 표현이 가능한 금속공예품은 현전하는 연초문화 관련 유물 중 가장 많은 종류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흡연상과 연초문화, 관련 제도 및 풍습 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중 담배합은 담배의 주요 재료인 담뱃잎을 잘라 넣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연초문화의 가장 보편적인 기물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 담배합은 연초를 넣는다 하여 연합[煙盒(烟盒)] 또는 연초합(煙草盒)¹이라고 불렸다. 또, 남령초(南靈草), 남초(南草)를 넣었다 하여 남초합(南草盒)이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² 일반에서 통상적으로의 사용은 물론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 중 하나이기도 했다.³

담배합은 흡연자의 생활공간에 항상 비치하고 이동시 휴대하는 기물이었기 때문에 실용성과 사용자의 기호를 모두 반영해야 했다. 담배합 중 철제입사담배합은 재료 및 기법의 특성, 사회경제적 상황에 기인해 조선 후기 소비층 사이에서 애호된 담배합 중 하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우선 철은 백동, 유동 등 다른 금속재료에 비해 재료의 국내 산출량이 풍부해 공급이 원활했으며, 왕실의례부터 민간의 생활용품까지 폭넓게 사용될 정도로 저변이 넓었다. 여기에 철제 공예품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입사의 세부기법인 쪼음입사는 기법이 지닌 고유의 특성을 토대로 수요자의 취향이 반영된 다채로운 문양소재와 조형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철제입사담배합은 17세기 새로 유입, 확산된 문화와 기존 사회에서

1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담배와 차문화의 내력을 서술한 부분에 담배합을 煙盒이라 명시했다. “...漢人此謂煙管尾，其說甚多，今略之，納縷煙者曰煙盒，煙袋，薦包，其吸煙之外濫觴，而中國則有鼻煙壺...”，『五洲衍文長箋散稿』，人事篇服食類，茶煙，煙草辨證說. 이 외에도 담배합을 연합, 연초합으로 명명한 사례는 조선시대 문헌과 문집, 『일성록』 등 관찬문헌에서 고루 확인된다.

2 남초합은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된다. “...趙良雲給五十兩 南草盒一坐 粉筒二介別給 修書於朴知事及金敏才.” 『荷齋日記』卷3, 紀事年(1893) 4월. 이 외에도 조선 후기 문집에서 남초합의 용례가 다수 확인된다.

3 『일성록』에는 정조가 신하들과 함께 화살을 쏘 뒤 여러 물품들을 참여한 신하들에게 하사한 기록이 있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내린 물품 중 김이영에게 준 하사품에 담뱃대의 설대(箭竹)와 대통(烟筒), 담배합(煙盒)이 포함되어 있다. “柳葉箭第一巡邊三中第二巡三中四分掌革單巡邊一中仍下古風右議政... 金履永烟筒二箇烟盒一部箭竹十箇...”. 『日省錄』 정조20년(1796) 2월 25일. 이 기록 외에도 조선 후기 관찬사료에는 왕실의 하사품, 일상품, 진상품 등으로 사용된 담배합의 다양한 용례가 확인된다.

유행하고 있던 장식기법의 결합을 보여준다. 이는 문화의 확산과 유행이 당대의 공예문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연초문화와 철제입사담배합에 주목하고자 한다. 담배 도입 이후 사회 내에서의 연초문화 향유와 담배합을 중심으로 한 연초도구의 소비풍토를 살펴보고, 실용성에 따른 형태와 구조, 그리고 문양 소재 및 시문된 기법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문양의 표현을 분석해 당시 사회에서의 연초문화와 철제입사담배합 성행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철제입사담배합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재료로 제작된 관련 유물과 회화작품, 사료, 문집 등을 함께 비교하였다.

현재 조선 후기 담배 및 연초문화는 관련 유물과 사료들이 많아 조선 후기 사회문화상을 짚는 단서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여러 기물과 일상문화에 대한 공예사적 해석과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은 철제입사담배합을 중심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뤘던 공예의 일상성과 실용품으로서의 사용 측면에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근대 이전 일상생활에서 실용품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공예의 일면을 바라보는 시도라는 점에 본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⁴

II. 담배의 국내 전래와 연초문화의 확산

1. 담배의 국내 유입

담배는 조선시대 일본과 중국 남부지역에서 재배되는 풀, 남쪽에서 수입하는 풀이라 하여 남령초, 남초라 불렸다.⁵ 남령초와 관련해 중국의 담배 산지에 살고

4 철제입사담배합에 대해서는 필자의 박사논문인 「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에서 기중 위주로만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본 논문은 그 내용을 기초로 확대, 심화한 것임을 밝힌다.

5 남령초의 용례는 많은 사례가 있다. 이 중 박지원이 담배의 유래 명칭 중 영초(靈草)라는 명칭이 있다는 중국 학자의 말에 조선에서는 남령초로 불린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18세기 당시 남령초가 조선 사회에서 담배를 일컫는 일반적인 명칭 중 하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余曰吾俗亦號南靈草.” 『熱河日記』 卷6, 太學留館錄, 初十日. 남초도 남령초와 더불어 가장 많이 문집에 나오는 용어로 이익이 흡연의 폐해를 지적한 다음의 예시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된다. “...南草之害, 極數之而猶有所漏, 人無無本.” 『星湖全集』 卷12, 書, 與鄭汝逸論農圃問答.

있던 담파(淡婆)라는 여인이 담질(痰疾)이라는 병을 앓다가 남령초(담뱃잎)를 먹고 나았다는 일화와 여인의 이름을 딴 명칭이자 조선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된 명칭인 담파고(淡婆姑)의 유래도 전해온다.⁶ 실제 조선 후기 문집들에는 담배가 담질(痰疾; 痰病)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과 담파고 유래를 함께 되짚는 글이 여럿 확인되어, 명칭의 유래와 담배가 지닌 효능에 대한 통념이 사회에 있었음을 보여준다.⁷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온 담뱃잎 덩어리라는 뜻을 지닌 명칭인 담박괴(淡珀塊)가 조선에 전래된 후 중국에서 전해진 명칭과 만나 담파고(淡婆姑)로 정착했다는 설도 있다.⁸ 이 외에 연기가 나는 풀이라 하여 연초(煙草; 烟草),⁹ 담뱃잎이나 줄기를 잘라서 피운다 하여 절초(切草),¹⁰ 코로 연기를 내뿜는다 하여 비초(鼻草) 등의 명칭도 확인된다. 이를 통해 조선에 유입된 담배의 원산지, 담뱃잎의 가공 형태, 당시 사회의 담배에 대한 인식과 흡연 방식 등 담배를 둘러싼 여러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담배는 유해성이 밝혀지기 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애호된 대표적인 기호품 중 하나이다. 최초의 산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남아메리카설이 중론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아메리카에서 향유되던 담배는 15세기 신대륙의 발견을 계기로 스페인, 포르투갈 및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기호, 의례, 교역, 화폐, 관상, 물질 채취 및 연구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소비되었다. 이후 15세기 후반~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전해진다. 일본은 1590년 전후 규슈(九州)를 중심으로, 중국은 명 만력 연간

6 “...南靈國有女人淡婆姑者，患痰疾，服南靈草，得瘳，故名之。”『林下筆記』卷13，文獻指掌編，淡婆姑。
 7 이 내용은 『無名子集』에 수록된 煙草歌 등 조선 후기 문집에서 확인된다. 담병은 몸에 열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병으로 속이 더부룩한 체기와 두통 등이 동반된다고 한다. “...담병 치료 효능을 생각해보면(我思破痰瘵) / 남령초와 오래도록 벗고 싶네(欲與長周旋) / 위장이 윤택해져 체기가 가시고(潤胃滯俱祛) / 목구멍이 축축해져 호흡이 순하네(濕喉氣欲窩).” 『無名子集』詩稿 卷1 時，在津有人以煙草歌命題賦百韻 押煙以速爲善 余亦走筆。
 8 이러한 명칭에 대한 유래 차이는 문집에서 주로 확인된다. 사례를 보면 『澤堂集』에 수록된 담배에 대한 시에 주석으로 본래 이름이 담박귀였는데 조선에 들어와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기록했다. “本名琺珀塊，至我國易以此名。” 『澤堂集』卷2 時，南靈草歌。
 9 연초(煙草; 烟草)라는 용어 자체는 담배가 국내 도입 초기인 17세기부터 확인되며, 18세기 후반~19세기 이전보다 많은 수의 기록이 확인된다. 남령초, 남초 등과 함께 활발하게 사용한 명칭인 것으로 추정된다. “...又按博物家，有稱煙茶者，有稱煙草者。” 『弘齋全書』卷52，策問5，南靈草。
 10 이 명칭은 切草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담배의 여러 종류 중 담배잎을 자른 담배를 지칭해 사용하기도 했다. 『荷齋日記』 사례는 담배(南草) 중 자른 담배(살담배; 切草)를 칭한 사례이다. “石村金教官宅 乾柿一貼南草一斤 朴雲山宅 豬脚一部 趙近守處 乾柿二貼又得來 折草合十五斤 李昌奉一百兩 都中器價移報一百兩都中入送...”, 『荷齋日記』卷1，辛卯陰晴錄，신묘년(1891) 12월 27일.

(1573~1620) 담배가 유입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¹¹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서도 중국 학자들과 담배에 대해 논하며 본래 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닌 서양 아미리시아(西洋亞彌利奢亞[아메리카])에서 시작한 것이 서양 배편을 통해 일본으로 와 중국-조선으로 전해졌다고 대화한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은 현재 정설로 논의되고 있는 미국-유럽-동아시아로 연결되는 담배의 유입 경로가 이미 18세기 전후 통설 중 하나로 자리했음을 보여준다.¹²

조선에 담배가 전해진 것은 17세기 초 광해군 연간(재위: 1608~1623)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 전래된 담배가 사행 간사대부층 및 상인, 역관 등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어 인조 연간(재위: 1623~1649) 크게 확산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조대 문신인 장유(張維, 1587~1638)의 수필집인 『계곡만필(谿谷漫筆)』(163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 온다.

남령초를 흡연하는 법은 본래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사람들은 이를 담박괴(淡泊塊)라 하며, 이 풀의 원산지(南洋)의 어떤 나라(諸國)이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물건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위로는 관직에 있는 이들부터 아래로 가마꾼과 초동목수(樵童牧豎)에 이르기까지 피우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이다. 이 풀은 『본초(本草)』 등 여러 책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성질이나 효능을 알 수 없으나, 다만 맛을 보니 매우면서도 약간 독기가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것을 복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저 태워서 연기를 들이마시곤 하는데, 많이 들이마시다 보면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나 오래도록 피운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리하여 지금 세상에서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백 사람이나 천 사람 중에 겨우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다.¹³

11 정수일, 『실크로드사전』 디지털판(창비, 201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348&cid=62093&categoryId=62093>.(다운로드: 2019년 8월 27일)

12 이 내용이 수록된 『열하일기』의 「태학유관록」은 박지원이 1780년 중국 열하에 있는 태학에서 6일간 지내며 학자 尹嘉銓, 奇豐額, 王民暉, 郝成과 조선과 청의 문물 및 제도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머문지 이틀째 담배의 유래, 문화와 관련해 논한 여러 내용에 함께 적혀있다. “...謂之南草, 鶴汀曰此非出日本, 本出洋船, 西洋亞彌利奢亞王, 嘗百草, 得此以醫百姓口疾.” 『熱河日記』 卷6, 太學留館錄, 初十日.

13 “南靈草吸煙之法, 本出日本, 日本人謂之淡泊塊, 言其草出自南洋諸國云, 我國自二十年前始有之, 今則上自公卿下至舉臺薨牧, 無不服之, 其草不見於本草諸書, 未知性氣及主治, 但味辛似有小毒, 人未嘗茹服, 但燒煙吸之, 吸多則亦令人暈倒, 久服者不必然, 世之不服者, 僅僅千百之一耳.” 『谿谷漫筆』 卷1 漫筆, 南靈草吸煙.

장유가 담배(南靈草)의 흡연상에 대해 적은 이 내용은 담배의 유입시기와 흡연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20여 년 전 일본에서 조선에 들어왔다고 기록했다. 이 책이 1635년에 편찬된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 설정된 담배의 조선 유입시기와 얼추 일치한다.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담배가 전래된 후 조선 사회 전반에 확산된 풍경을 함께 보여준다.

이후 중국 연행기록 및 일본 사행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차문화(茶文化)와 결합해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즐겼던 중국과 일본의 일상화된 연초문화를 관찰해 상세히 기술한 사례가 여럿 확인된다.¹⁴ 이와 함께 조선의 담뱃잎, 담배도구 소비상을 사신단의 자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실제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이러한 당시 중국과 조선의 풍속을 빗대어 담배를 연다(煙茶)라 부르기도 한다고 기록했다.¹⁵ 또 18세기 이후 연행기록에는 연초문화를 일반 식문화(食文化)의 일종으로 인식하기도 해, 이미 연초문화가 당대 보편적 문화의 일종으로 사회 내에 확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⁶ 이와 함께 담배 유입 전후로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연초도구들이 선물로 전해지는 사례가 많아, 담배의 유입 초 조선의 연초도구 종류와 기형 등의 형성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⁷

2. 연초문화의 성행과 도구의 소비

담배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현전하는 연초문화 관련 국내산 유물 대다수는 17세기 중엽~18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 유입 초기인

14 숙종46년(1720) 42일간 중국 북경에 체류한 연행단이 기록한 『경자연행잡지』에는 차를 마시며 오랜시간 담배를 피우며 담소를 나누는 중국의 일상적 풍경이 기록되어 있다. “…待客。必以茶行茶禮。亦如行酒。各人各鍾。隨飲隨斟。而茶要必熱。在鍾稍冷。則還傾壺中。飲茶尤要緩緩。呷茶一盞。幾至吸煙之久。” 『庚子燕行雜識』 下, 雜識.

15 “…又按博物家。有稱煙茶者。” 『弘齋全書』 卷52, 策問5, 南靈草.

16 1803년(순조3) 문신 이해응이 중국 연경으로 연행을 간 뒤 작성해 1804년(순조4) 편찬한 『薊山紀程』 卷5 飲食條에는 중국의 식문화에 대해 기록했는데, 밥, 죽, 술, 차와 더불어 담배를 식생활의 하나로 여겨 함께 기록했다.

17 여러 문헌기록과 외교관련 기록에는 담배합, 담뱃대, 담배잎 등을 받은 기록들이 전해지는데 1748년 일본에서 선물로 받은 담뱃대는 조선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물부리가 은으로 된 대나무 곱방대로 추정되어 관계성이 주목된다. “…倭人使通引進煙草具於三使及太守。長老之前。銀竹。銅爐。螺鈿圓盤。燦然生輝。” 『海行總載』, 『奉使日本時間見錄』 무진년(1748) 3월 5일.

17세기 초엽에는 담뱃잎과 연초도구들을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해왔다. 이에 고가의 가격이 형성되었고, 향유하는 이들의 계층이 왕실 및 사대부 층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17세기 후반~18세기부터 담뱃잎의 재배농가가 점차 늘어 국산화되었고, 담배합, 담뱃대, 재떨이 등 연초도구도 국내에서 산출되는 재료 위주로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경세유표(經世遺表)』, 『반계수록(磻溪隨錄)』,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 사회 내의 경제, 제도, 풍습과 관련해 쓴 여러 저술서에는 담뱃잎의 재배, 연초도구 제작 등 연초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확인된다.¹⁸ 이러한 연초문화의 확산은 조선 후기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해 사회 전 계층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개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담뱃잎과 연초도구의 국산화는 상공업의 발달과 민간 유통 및 제작, 소비의 활성화와 맞물려 연초문화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개항기인 19세기 말 조선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저서를 살펴보면 담배합을 비롯한 조선의 연초도구 구입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사회 내 연초도구의 접근성과 유통, 판매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저서에는 철제입사담배합이 담배합 또는 은으로 장식한 상자로 기록되어 있다. 또, 외국인들은 시전의 철물점이나 기타 상점에서 철제입사담배합을 구입했으며, 상점 내에서 담배합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장인을 보았다고 기록한 저술서도 있다.¹⁹ 이처럼 19세기 말에는 시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연초도구의 접근성이 크게 증대된 상태였다. 이러한 민간의 도구 판매 및 접근성의 확대는 민간 상공업이 활성화된 후 편찬된 1785년(정조9)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수공업 및 민간 상업에 대한 기초 제도를 정비했을 당시 이미 전개된 사회적 현상이었다. 이는 연초도구는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연초도구와 직결된 금속을 다루는 상점들의 당시 현황을 살펴보면 1870년경 전후로 편찬한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의 민영수공업 현황에 기존 국가에

18 김세린, 「조선시대 금속공예 입사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347. 『經世遺表』 卷9 地官修制, 田制別考 2: 卷12 地官修制, 倉廩之儲2 등 정약용의 문집 외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유흥원의 『반계수록』 등 조선 후기 편찬된 문집에는 담배 및 담배농사, 연초도구와 관련된 다양한 논설과 논의가 실려있다.

19 여러 기록 중 1884년부터 주한 영국 영사를 지낸 W.R 칼스의 『조선풍물지 Life In Corea』 기록은 주목된다. 이 기록에는 서울의 상점 진열품으로 있었던 철제입사담배합을 서술하면서 외관과 기물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또 담배를 담아두는 용기라고 명시했으며 제작기교가 상당히 다양했다고 기술했다. W.R. 칼스,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집문당, 1999), pp.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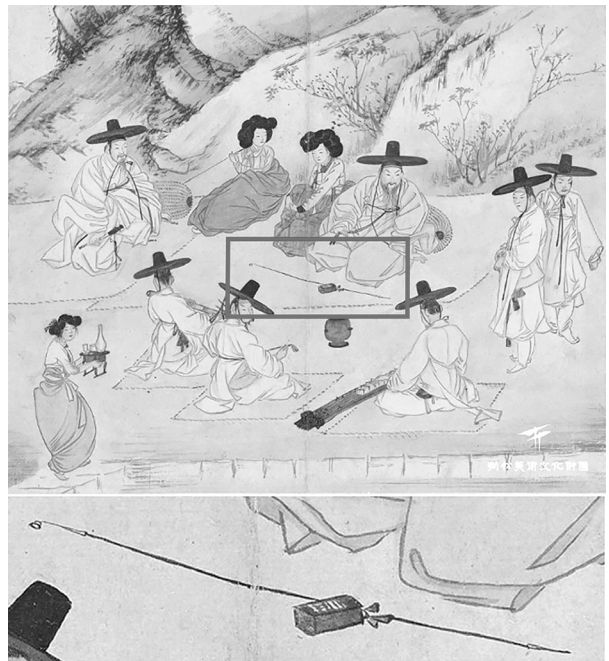
서 직접 관리했던 철물점(鐵物店)과 유기점(鑰器店), 동점(銅店), 도자전(刀子塵) 등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민간 점포의 수가 확산된 상태였다. 또, 18~19세기 시전의 금속을 취급하는 점포의 종류 자체도 장신구만 취급하거나 유기그릇만 취급하는 등 세분화, 전문화된다. 여기에는 연초도구도 포함되었다. 기존 철물점이나 유기점 등 금속공예 관련 상점에서 취급하던 금속제 연초도구는 연죽전(烟竹塵) 등 전문 상점에서 제작, 판매,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18~19세기 연초문화가 사회 전반에 성행해 도구 관련 전문 상점을 유지할 정도의 소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⁰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현재 18~19세기 서울에 있었던 상점 중 연초도구를 취급한 상점은 총 두 곳이 확인된다. 하나는 하량교 남쪽에 위치했던 연초전(烟草塵)이고 또 하나는 군기시 앞 약현에 위치한 연죽전(烟竹塵)이다. 두 곳 모두 담뱃잎과 담배합, 담뱃대 등 연초도구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하량교 남쪽에 위치했던 연초전은 국내산 및 중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도구, 중국을 통해 서양에서 수입한 서초(西草)를 모두 취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²¹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확산된 담배는 풍류와 취미, II-1장에서 언급한 병의 치료, 차와 식문화 등 다양한 의미와 역할이 더해져, 조선 후기 사회의 기호품이자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했다. 이와 함께 흡연을 하며 생긴 일화나 상황, 흡연을 할 때 자신의 기분을 담은 시나 수필, 그림 등 흡연을 모티프로 한 여러 분야의 창작 활동이 함께 성행했다. 신윤복의 <상춘야흥(賞春野興)>²²과 같은 작품은 당시의 풍류 문화와 함께한 흡연문화와 도구의 사용을 단적으로

1

신윤복
<상춘야흥>에 표현된
담뱃대와
철제은입사담배합
조선 후기
간송미술관 소장



20 김세린, 앞의 논문(2019), p.252.

21 본 내용은 고통환,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지식산업사, 2013), pp.164-169의 조선 후기 서울 상점 관련 한 내용에서 연초도구 관련 내용을 추출해 정리했다.

보여준다.

조선 후기 연초문화를 둘러싼 사회상과 개인의 향유, 흡연을 모티프로 한 창작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저서인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에 수록된 그의 흡연과 관련된 다양한 성격의 글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시와 수필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담배를 피우며 상념을 되뇌거나,²² 숙부와 함께 용문사에 가서 한 흡연에 대한 감상,²³ 지인과 산에 가 경관을 보며 서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함께한 일화²⁴ 등 흡연과 함께한 다양한 일상과 생각들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다수 있다. 한편으로는 농업의 발달을 위해 경제적인 목적으로 곡물 등을 등한시하고 무분별하게 담배만을 재배하는 것을 경계하는 상소도 있다.²⁵ 『다산시문집』에 수록된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글들은 당시 담배와 흡연을 둘러싼 여러 복합적인 사회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편 1810년에 출간된 담배의 경전이라는 뜻을 지닌 조선 후기 문인 이옥(李鈺, 1760~1815)의 저서 『연경(煙經)』은 담배와 연초도구에 대한 정보를 백과사전처럼 담고, 당시 연초문화에 대한 소개와 관련 사회상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자신

22 “...麥秋山氣晚淒然(보리 가을 저문 날에 산기운 설렁한데) / 하릴없이 담배만 피며 밤새 잠 못 이루노니 / 閑燕金絲耿不眠(하릴없이 담배만 피며 밤새 잠 못 이루노니) / 夜久虛檐棲雀穩(으스스한 밤 빈 처마엔 참새가 편히 깃들였고) / 碧天如水一蛛懸(물같이 푸른 하늘엔 거미 하나가 매달렸다).” 『茶山詩文集』 卷7, 夏日田園雜興效范楊二家體二十四首 중에서.

23 “...不獨看山是愛山(산구경만이 아니라 바로 산을 사랑함인데) / 看山大抵一行閒(산구경은 대저 하나의 한가로운 행사로세) / 臨谿且燕金絲袋(시냇가에서 담배 한 대를 꺼내 피우며) / 遙對青螺數點鬟(푸른 두어산봉우리를 멀리 마주하노라).” 『茶山詩文集』 卷7, 陪叔父遊龍門寺 중에서.

24 “... 이 날 절승한 경관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말에서 내려 물가에 앉아서 혹은 술을 부어 서로 권하기도 하고 혹은 담배를 서로 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양치질도 하고 발도 씻으면서 오르내렸으니, 이는 대개 특별히 선택한 세 곳으로 7, 8, 9곡의 탈락을 보충하려는 생각에서였다. ... 是日每遇一勝, 必下馬臨流, 或酌酒以相酌, 或吸煙以相貽. 漱齒濯足, 以沿以洄. 蓋欲別選三處, 以補七八九之黜也.” 『茶山詩文集』 卷22, 汕行日記.

25 “...농업이 침착하는 까닭은, 연다(煙茶)가 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체 엄금해야 된다고 말하나, 근래 의민 중에 장개빈(張介賓) 같은 이는 담배를 매우 양약(良藥)이라 치켜세워서 ‘그것이 담(痰)을 다스리고 장기(瘴氣)를 막고, 속을 달게 하고 충(蟲)을 죽이는 공이 빈랑(檳榔)보다 낫다.’고 하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진(良田) 옥토(玉土)가 모두 담배밭이 되면 이 또한 폐속입니다. 신이 일찍이 보건대, 호서 제읍은 담배를 모두 산에 심어 옛날 등전 제도와 같이 하되, 맛과 품질도 역시 좋았으니, 지금 마땅히 약조를 엄하게 세워 팔도의 담배 농사는 모두 산에 심도록 하고, 평야에 담배를 심는 자는 모두 엄히 금지시키되, 오직 삼등(三登) 일현(一縣)만은 그것을 야종(野種)하도록 허가하여 장상하게 하면, 민간의 기호도 끊기지 않고 농리(農利)도 더욱 후하여질 것입니다. ...農所以削, 煙茶盛也, 或議一切嚴禁, 然近醫如張介賓者, 盛推煙爲良藥, 謂其有治痰禦瘴溫中殺疰之功, 勝於檳榔, 審如是也, 不可禁也. 然良田沃壤, 沒爲煙畦, 斯亦弊俗, 臣嘗觀湖西諸邑, 煙皆山種, 如古磴田之制, 味品亦佳, 今宜嚴立約條, 八道煙農, 皆令山種, 平野種煙者, 竝嚴禁, 唯三登一縣, 許其野種, 以供進上, 則人民嗜好不絕, 而農利益厚矣.” 『茶山詩文集』 卷9, 應旨論農政疏.

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다. 이 중 서문의 다음과 같은 문장은 18세기 말~19세기 초 연초문화 및 도구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²⁶

꽃이 필 때 연기를 내뿜고 달이 뜰 때 연기를 들이마시노라면, 담배는 술을 마실 때의 오묘한 맛을 겸비하였고, 파란 연기를 태우고 붉은 연기를 피워내노라면, 담배는 향을 사를 때의 깊은 멋까지 갖추고 있다. 담뱃대를 은으로 만들고 담배통을 꽃무늬로 아로새겨 즐기노라면 차(茶)를 마시는 멋진 풍치(風致)까지 간직하였고, 담배 꽃을 가꾸고 담배 향을 말리노라면, 진귀한 열매와 이름난 꽃에 비교해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다.²⁷

이옥은 또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다구(茶具)처럼 흡연에 있어 중요함을 강조하고, 연초도구의 장식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²⁸ 이옥이 강조한 도구의 실용성은 이미 사회 내에서 중요 덕목으로 여겨졌다. 유물을 통해 보면 휴대성이나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형태의 연초도구가 18세기 후반~20세기 초까지 꾸준히 확인된다.

반면 장식은 수요자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지만, 점차 부와 계층에 따라 차별화시키려는 사회적 현상이 심화하였다. 이에 가격이 비싼 재료나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기법을 도구의 장식이나 기물에 사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고종 10년(1873) 조각 및 화려한 장식을 한 담뱃대의 금제를 시행할 정도였다.²⁹ 또, 같은 기록에는 금제 시행을 논의할 당시, 민간의 사장(私匠)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오동입사, 납입사, 도금, 조이 등의 장식기법으로 화려한 무늬를 시문하는 데 혈안이 되었고, 심한 경쟁이 이어졌다고 적혀있다.

이는 19세기 중·후반의 사회상과 함께 입사기법(入絲技法)으로 장식된 연초

26 김세린, 앞의 논문(2019), p.347.

27 이옥 저, 안대회 역, 『연경: 담배의 모든 것』(휴머니스트, 2008), p.33. 유득공도 현전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저서를 남겼다고 전해지며 정약용도 이 책을 즐겨 읽었다는 기록이 있어(같은 책, p.20 역사서문), 흡연에 대한 인식과 애호풍조는 당대 사회의 전반적 경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8 이옥 저, 안대회 역, 앞의 책(2008), p.85.

29 『각사등록』에는 금제를 취하기 전 금제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 당시 담뱃대의 사치품을 논하며 금제를 건의한다. “煙臺一種言之, 金雕銀飾, 爭相奇巧 … 以後煙臺之金銀鳥銅雕飾自, 先者產各處, 而一切通禁…”, 『各司謄錄』統制營關牒, 고종10년(1873) 8월 초6일. 그리고 실제 8월 21일 금제를 취했다. “煙臺之金銀鳥銅雕飾者, 一切通禁.” 『各司謄錄』統制營關牒, 고종10년(1873) 8월 21일.

도구가 상류층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연초문화가 조선에 정착한 이후 연초도구가 단순히 흡연을 위한 도구가 아닌 취향과 계층을 보다 부각하기 위한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한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한다. 조선 후기 연초문화와 도구는 이처럼 당시의 풍속, 사회, 경제, 문화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Ⅲ. 용도에 따른 철제입사담배합의 형태와 구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배합은 담뱃잎의 보관을 위해 사용한 필수 기물이다. 조선 후기 담뱃잎은 담뱃잎을 재배해 건조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용에 불편함이 커 건조된 잎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절초(切草)를 사용했다. 담배합은 이 절초를 보관하는 합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담뱃대의 대통에 담뱃잎을 직접 넣은 뒤 불을 붙여 흡연했기 때문에 담뱃대와 담뱃잎, 담뱃잎을 담는 담배합은 흡연자가 흡연을 위해 상시 지녀야 했다. 이런 이유로 담배합은 항상 생활공간에 비치되고, 동시에 외출할 때 필수 휴대품이었다.

담배합은 보관이 일차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료에 내구성이 담보된 나무, 돌, 동과 철, 도자기 등을 합 형태로 만들거나, 가죽, 직물 등을 주머니 형태로 제작해 사용했다. 표면의 문양은 없는 것도 있고, 당시 유행한 다양한 문양 소재를 넣어 장식하기도 했다. 장식기법은 기물의 바탕재료 특성과 용도, 당대의 경향에 따라 달라졌는데, 금속제 담배합은 입사기법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주제인 철제입사담배합은 당시 조선 사회의 원료 수급 상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인, 바탕재의 물성과 장식재의 종류, 장식기법의 특성과 문양 표현의 폭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애호되었던 담배합 중 하나이자 당시 사회의 연초도구 소비문화를 잘 보여주는 기물이다. 이는 IV장의 문양과 함께 다시 한번 논하겠지만, 기물 자체가 사용의 편의성과 내구성, 사용자의 취향과 당대의 경향, 사회 내 위계와 상징을 반영한 문양들이 기물에 적재적소에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철제입사담배합에 내재한 이러한 요소들은 1차적으로 공예품이 용도에 따라 형태와 장식과 같은 공예품 자체의 구성이 갖춰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2차적으로는 공예품의 형태와 의장이 결과적으로는 1차적 요인에 사회경제적 요소, 기법

과 재료의 특성, 사용자의 소비취향 등 기물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랜 시간 절충을 거쳐 완성되는 것임을 알려준다. 이는 기성품의 도래 이전 생활필수품이자 기간산업이었던 공예의 본질과 역할이기도 하다. 새로운 기호문화인 담배의 유입과 성행에 따른 관련 도구의 확산에 이미 성행하고 있던 공예 기술과 재료가 결합해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제작, 사용된 철제입사담배합은 공예가 지닌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철제입사담배합은 사용 공간 및 휴대여부 등 실용성을 강조한 기형과 구조가 확인된다. 또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로 제작된 기물의 표면에는 금과 은으로 다양한 문양 소재를 감입해, 당시 사회에서 유행한 여러 표상과 조형, 인식 등을 엿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철제입사담배합에서 확인되는 사용형태와 목적이 반영된 연초도구의 형태와 구조를 통해, 조선 후기 연초도구의 사용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담배합은 기본적으로 뚜껑과 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형태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원통형으로 나뉘며, 뚜껑을 여닫는 방식과 휴대 여부에 따라 들쇠장식의 유무가 결정된다. 담배합의 주된 사용 목적이 형태를 결정했기에, 그에 따라 형태와 구조, 크기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본 장에서는 철제입사담배합을 중심으로 형태와 구조를 사용 목적인 휴대용인 I유형, 공간비치용인 II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유형은 주된 목적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실제 사용에서는 휴대와 공간 비치가 함께 이뤄진 경우도 많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1. I유형(휴대용)

앞서 살펴본 신윤복의 <상춘야흥>과 같은 회화작품과 문헌에서는 야외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흡연하는 기록을 종종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금연구역이나 흡연 구역이 존재하는 현재와 달리 흡연하는 공간에 있어 제약이 없었다. 이에 생활공간과 일하러 가는 길, 일터, 여행을 떠나는 길 등 다양한 공간에서 혼자 또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흡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흡연자라면 이동할 때 담뱃대와 담배합은 필수 휴대 물품이었다. 관리들이 등청할 때 말에 철제입사담배합을 가죽끈에 매달아 휴대해 등청한다는 『경도잡지(京都雜誌)』의 기록은 당시 이러한 연초문화의 단면과 휴대용 담배합의 용례를 잘 보여준다.³⁰

I유형은 휴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높이가 5~10cm 정도의 소형으로 원통

형 또는 직육면체 형태이다. 짐이나 말의 안장, 옷 등에 담배합을 묶거나 달고 다닐 수 있도록 고리나 들쇠가 있는 경우가 많다. 들쇠는 담배합을 비롯한 휴대용 기물에 주로 사용되는 부속구 중 하나이다. 담배합의 옆널에 주로 부착되었는데, 처음에는 담배합을 끈에 묶거나 들어 올리는 실용적 목적이 강조되었으나, 점차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해 기존의 사각, 타원형 외에 박쥐, 나비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었다.³⁰

I유형 담배합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개폐원리는 뚜껑을 동체가 만나는 부분 또는 연결되는 부분에 장치를 활용한 것이다. 이는 담배합을 휴대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뚜껑과 동체가 분리돼 담뱃잎이 새거나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뚜껑이 완전히 동체에서 분리되지 않는 형식인 데다, 뚜껑이 열리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 밀어야 하기 때문에 휴대시 충격이나 흔들림에 따른 여러 상황을 일정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I유형은 개폐 원리에 따라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I-1유형은 입사를 포함한 조선 후기 금속제 담배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앞서 언급한 문헌기록과 개항기 외국인들의 저술에서도 다수 확인되는 유형이다. 직육면체와 원통형 담배합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뚜껑과 동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리되어 담뱃잎이 새거나 쏟아지지 않게 뚜껑과 동체가 꼭 물릴 수 있도록 동체 상부 양 옆의 널과 같은 개폐장치를 활용해 마치 슬라이드문처럼 뚜껑을 빼낼 수 있게 했다.³⁰ 하지만 직육면체 담배합과 달리 원통형은 원이라는 형태의 특성상 동체와 뚜껑이 만나는 부분에 직접 널을 부착해 빼달이를 할 수 없다.

2

직육면체 형태
〈철제은입사담배합〉
조선 18~19세기
국립민속박물관

뚜껑 개폐방식에 따른 I유형의 세부유형(I-1 유형)



3

원통형태
〈철제은입사연초합〉
조선 18~19세기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오구라컬렉션



30 『京都雜誌』卷1, 風俗, 茶煙條, “…朝土必有煙盒 鐵鑄銀銅梅竹紫鹿皮綫并…”

뚜껑 개폐방식에 따른 1 유형의 세부유형(1-2 유형)



4

〈철제입사담배합〉
개폐장치부분
조선 19세기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
민속박물관

이에 뚜껑까지 일체형으로 만들고, 뚜껑을 삼등분 한 뒤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 홈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홈의 양 옆에 널을 만든 뒤 그 홈과 동일한 형태로 만든 뚜껑을 빼달을 수 있게 했다.^{도3} 동일한 빼달이 방식이지만 1-1 유형의 형태에 따른 개폐장치는 당시 수요자의 취향과 실용성,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유형은 유물이 많지는 않으나 개폐방식에 있어 1-1 유형과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닌다. 원통형 담배합에서만 등장하는 이 형식은 기물의 형태에 따른 개폐 및 밀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1-2 유형은 1-1 유형의 원통형과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지만 뚜껑과 동체가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뚜껑과 동체를 주로 들쇠가 달린 상부 끝에서 만나게 하는데, 만나는 부분에 동체 안쪽에는 속이 빈 동체와 동일한 높이의 둥근 통을 부착했다. 그리고 뚜껑은 동일한 위치에 둥근 통에 끼울 수 있는 동체와 동일한 높이의 막대기를 부착해 뚜껑과 동체를 조립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1-1 유형과 같이 일자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담배합을 여는 것이 아닌, 회전축의 역할을 하는 동체 내부와 뚜껑의 막대 장치를 이용해 부채꼴 방향으로 뚜껑 전체를 밀어내게 하였다.^{도4} 이 유형은 뚜껑 전체가 개폐부로 활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1-1, 2 유형 모두 입사장식은 뚜껑 윗면과 동체와 닿는 측면, 동체 면 전체에 문양을 감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직육면체형 담배합은 동체 4면과 뚜껑, 뚜껑 측면에 문양을 시문했다. 문자문을 뚜껑 중심문에 배치하고, 동체 부분은 화조문, 길상문, 당초문, 십장생문, 기하학문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다. 문양 배치는 동체 각 면을 하나의 화폭처럼 사용해 각기 다른 소재를 채워 넣거나, 넓은 두 면에는 화조문, 십장생문 등 일정 형식에 따른 배치를 하고 좁은 두 면에는 기하학문을

빼곡히 채우는 등 한정된 기물면 안에서 다채로운 양상을 보인다. 원통형 동체의 문양소재는 직육면체형과 동일하다. 다만 동체 원통 면 전체를 하나의 화폭처럼 활용해 하나의 문양을 완성하기도 하고, 기하학문이나 직선을 이용해 동체의 면을 구획한 뒤 십장생이나 매죽문 등을 각 면에 채우는 식으로 구성하는 등 직육면체 형보다 문양배치 양상이 다양한 편이다. 뚜껑은 대부분 직육면체형과 동일하게 문자문을 중심문으로 배치하고 주변에 기하학문을 빼곡이 채우거나, 기하학문만 가득 채우는 사례가 많다.

2. II 유형(공간비치용)

II유형은 주로 생활 및 업무공간, 서재 등 주로 공간 한 곳에 비치해 사용했던 담배합이다. 뚜껑과 동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합(盒) 형태이며, 높이가 대략 7~15cm 정도로 대체로 I유형보다 크기가 비슷하거나 크다. 원통형과 직육면체, 정육면체 형태가 주로 확인되며, 사각의 육면체형은 높이가 15cm에 육박해 마치 상자와 같이 보이는 유물도 있다. I유형이 대체로 금속공예품과 소수의 나전칠기를 비롯한 목칠공예품에서 나타난다면, II유형 입사장식 담배합은 철과 백동, 오동 등 금속은 물론 갑산석이나 돌로 제작해 은을 감입한 석제공예품, 나전기법이나 은을 감입한 금속 장식구를 활용한 목칠 등 공예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확인된다.

휴대보다는 공간 비치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끈을 달거나 말에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들쇠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동체의 양옆에 종종 들쇠 장식이 부착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는 장식과 이따금 휴대용으로 사용할 때 가죽끈을 통과시켜 고정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체 아래 다리가 부착된 유물도 다수 현전한다.

문양은 뚜껑의 윗면과 측면, 동체에 시문되었다. 뚜껑은 윗면에만 문자문을 단독입사하거나, 문자문을 윗면 중심에 입사한 후 주변과 측면에 기하학문으로 장식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도5} 동체의 문양소재는 I유형과 거의 동일하다. 다리가 있는 담배합의 경우 뚜껑, 동체와 동일한 재료로 다리를 제작하기도 하고, 동체와 뚜껑은 철, 다리는 유동(鎳銅) 등으로 재료를 달리하기도 했다. 문양시문은 다리까지 된 경우도 있고, 그대로 남겨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다리와 재료가 다를 경우 다리와 동체 고유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다리에는 아무 시문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철제은입사이화문담배합〉^{도6}과 같이 뚜껑



5

〈철제은입사연초합〉

조선19세기

독일 쾰른동아시아박물관

6

〈철제은입사이화문담배합〉

조선 19세기말~20세기 초

서울역사박물관

윗면 전면에 이화문을 시문한 사례도 있다.

Ⅱ유형의 이러한 양상은 공간에서의 편리한 사용, 절초의 효율적인 보관과 함께 다리와 같은 장치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간에 비치된 다른 가구들과의 어울림을 고려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IV. 철제입사담배합의 문양소재와 표현

기물의 바탕에 문양의 형태를 음각하고, 금속장식을 끼우거나 박아 넣는 입사기법은 Ⅱ-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대부 및 부를 축적한 상인, 역관층을 중심으로 사치풍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조선 사회 내에서 성행했다. 동과 철, 갑산석이나 곱돌 등 돌로 제작된 담배합에 금속으로 문양을 감입(嵌入)한 입사장식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도7, 8}

7

〈석제은입사담배합〉

조선 18~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8-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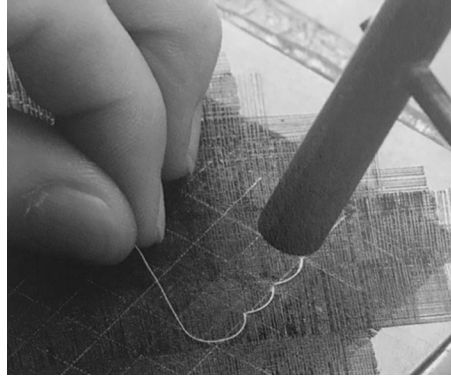
〈담배합〉의

입사장식구 부분

조선 19세기

국립민속박물관





이 중 조선 후기 사회 전반에 성행한 철제입사공예품이 유행의 중심이었다. 이런 까닭인지 국내에 현전하는 입사장식 담배합 유물 중 철제입사담배합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내구성과 당시 유행한 장식기법이라는 측면과 함께 철 자체가 다른 재료들에 비해 국내 산출량이 풍부하

고 다방면에 사용되었던 당시 사회경제적 측면과도 맞물린다.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 입사기법 중 각종 곡선과 회화풍 소재를 비롯한 다양한 문양표현이 용이해 성행했던 입사의 세부기법인 쫄음입사가 주로 사용되었다. 쫄음입사는 밑그림을 기물에 옮겨 문양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홈에 얇게 가공된 장식재를 자유롭게 쫄아 넣기 때문에 직접 정으로 각을 하는 다른 세부기법에 비해 곡선을 비롯한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작은 망치로 문양 위에 장식금속을 박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식금속이 들어가는 홈이 얇고 장식금속을 박는다기보다는 거의 걸거나 부착하는 개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표현된 소재의 폭과 영역이 입사의 세부기법 가운데 가장 넓은 편에 속한다.³¹ 또 아울러 쫄음입사는 입사 시문을 위해 기물 표면 전체에 정질을 해 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한 기물의 물성이 담보되어야 했다. 이에 금속 중 물성이 단단한 편이면서 동시에 조선에서 가장 많이 산출되어 소비자의 폭이 넓었던 철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입사로 장식한 담배합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철제입사담배합은 당시 위계가 높았던 재료인 금과 은을 장식에 사용함으로써, 실용 또는 취향, 위세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법의 특성에 기인한 문양소재를 표현할 수 있는 폭도 넓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철제입사담배합의 유행 배경이 되었으며, 담배합을 포함한 조선 후기 입사공예품 전반에 걸친 현상이었음이 문헌에서도 확인된다.³²

31 김세린, 앞의 논문(2019), p.28.

32 『연경』, 『경도잡지』, 『임원경제지』 등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임원경제지』에는 조정의 관

철제입사담배합에는 다양한 문양소재가 장식에 활용되었다. 수복문(壽福紋)을 포함한 문자문, 기하학문, 당초문, 팔괘문, 태극문 등 공예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문양은 물론 십장생(十長生), 화조(花鳥), 매화(梅花), 난초(蘭草), 까치호랑이 등 회화와 공예를 아울러 폭넓게 적용되었던 소재들이 장식되어 당시 수요자의 경향을 짐작하게 한다. 문양 배치는 기본적으로 동체의 각 면과 뚜껑에 중심문양과 보조문양과 함께 시문되기도 하고 동체 넓은 면과 뚜껑 윗면에 수복문, 기하학문, 화조문 등 중심문이 시문되기도 했다. 시문될 기물의 세부 면 형태와 공간에 맞춰 중심문양 주변의 여백을 메꾸기 위한 보조문양이 배치되기도 했다.

문양의 도안은 공예품 제작의 분업이 철저하게 이뤄졌던 왕실에서는 현재의 평면 도안과 같은 역할을 한 화본(畫本)을 도화서의 화원(畫員)이 직접 제작했다. 민간에서는 화원 또는 기물제작이나 입사를 포함한 장식 및 문양 시문을 담당했던 장인이 화본을 제작했다. 공예품의 제작, 설계를 위한 문양 및 기형의 평면도안 제작과 활용은 일정 형식을 지닌 문양이나 기형이 화본을 통해 사회에 유통되어 문양 및 형태의 정형화나 형식, 경향의 구축과 유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³³

이처럼 입사공예품의 문양은 앞서 언급한 경향과 표상 등이 반영된 소재를 도안으로 제작한 뒤, 기물의 형태, 기물재료와 장식 재료가 지닌 물성 등을 고려해 시문이 이루어진다. 본 장에서는 철제입사담배합 유물에서 확인되는 주요 문양소재를 중심으로 장식과 문양 표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화조문(花鳥紋)

화조문은 날짐승인 금조류(禽鳥類)와 꽃과 나무 등의 식물류를 조합해 그리거나 기면에 시문한 것을 의미한다.³⁴ 조선시대에는 신숙주의 『화기(畫記)』에서 화조(花鳥)라는 명칭이 처음 확인되며,³⁵ 이후 법전 및 문헌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화조가 이와 같은 소재 전반을 다루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이 파악된다. 또 의궤에

리들이 동이나 철로 제작된 작은 함을 사용하는데 사면에 화조문, 근자문 등이 시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朝土用銅或鐵作小盒，其形或墮方或正圓，或如三四寸竹筒，皆銀鑲花鳥，近字等紋…”，『林原經濟志』卷3 瞻用志，起居之具，煙草匣。

33 김세린, 앞의 논문(2019), pp.384-385.

34 홍선표, 『조선시대회화사론』(문예출판사, 2004), p.523.

35 위와 같음.



도 공예 전반에 화조장식(花鳥粧飾)이라는 명칭으로 화조 소재 시문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은 화조문이 조선시대 화조장식(花鳥粧飾), 화조문(花鳥文)이라는 명칭으로 공예의 문양 소재 중 하나로 통용되었음을 알려준다.

현전하는 조선시대 입사 유물에서 새와 식물이 공존하는 화조문은 17세기 이후 등장한다. 하지만 고려시대 청자 상감 영모 초화문 매병

이나 청동 입사 포류수금문 및 수금문 병과 같은 입사와 근간이 동일한 감입법으로 장식된 유물에서 화조문의 기본구성을 지닌 문양이 확인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입사공예품의 화조문은 17세기 이전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17세기의례에서도 입사공예품의 화조문 시문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에 입사공예품의 화조문 장식은 현전하는 유물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후기 문헌기록에서 입사공예품의 화조문 장식은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확인된다. 입사로 장식된 담배합에서의 시문은 『임원경제지』 등에서 연초 문화 및 연초도구, 문방구와 관련된 기록에서 확인된다.³⁶ 현재 전해지는 유물을 통해 철제입사담배합의 화조문 구성을 살펴보면 매화와 새가 가장 많으며,^{도10} 그 외 다른 소재의 꽃나무와 새가 구성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꼬임입사로 시문된 사례가 가장 많다. 나무와 꽃, 새 모두 면으로 표현되는데 장식금속을 촘촘히 쪼아 넣고, 꽃의 술이나 새의 눈, 주된 깃털은 끼움입사의 투각효과처럼 시문하지 않거나 굵게 실을 쪼아 넣었다. 원통형 담배합은 면 전체를 하나의 화폭처럼 활용해 화조문을 시문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각의 육면체형 담배합은 양쪽 넓은 면에 화조문을 넣고, 측면에는 대나무나 다른 문양소재를 넣는 경우가 많다. 도식화되어 시문되었지만 새와 꽃나무의 구성이 명확하게 지켰으며, 기물의 넓은 면에 프레임까지 갖춰 표현한 사례도 있다.

36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朝土用銅或鐵作小盒，其形或墜方或正圓，或如三四寸竹筒，皆銀鑲花鳥，卍字等紋。”『林原經濟志』卷3 瞻用志，起居之具，煙草匣。

2) 매화, 대나무문(梅花, 竹紋)

대나무, 난초, 매화, 국화문은 조선시대 일정한 형식을 갖춰 의물의 문양으로 사용할 만큼 왕실공예품의 표상화 된 소재이자, 사대부, 여향문인 등 각 계층에서 폭넓게 향유했던 회화 및 공예의 대표적인 소재이다.

이 문양소재가 언제부터 입사공예품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연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문헌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왕실 및 상류층에서 널리 그려지고 향유된 사실이 확인되며, 조선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³⁷ 하지만 그 외 유물과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용례를 보면 입사공예품에서 본격적으로 매화, 대나무의 사용이 확인되는 것은 17세기 전후로 도자나 목칠공예에 비해 시기가 늦은 편이다.

입사공예품에서의 적용은 회화에서 이 소재들이 성행한 이후 향유층인 조선 사회의 왕실 및 사대부를 중심으로 입사장식 적용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철제입사담배합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초문화가 보편화된 18세기부터 이 소재들의 시문이 성행했다. 짚음입사로 시문되었으며, 동체 양면에 매화나 난초, 대나무

11
〈철제입사연초합〉
조선 19세기
일본 민예관

12
〈동제담배합〉
조선 18세기 말~19세기
국립민속박물관



37 고려 문신 이인로(1152~1220)의 문집인 『파한집』에 수록된 목죽병풍에 관련한 일화 등과 같은 사례들은 당시 사군자 소재들의 지변과 용례를 보여준다. 『破閑集』卷上 碧蘿老人, 嘗以睡居士所畫墨竹小屏贈僕, “碧蘿老人, 嘗以睡居士所畫墨竹小屏贈僕, 題白傳詩一句於後云, ‘管領好風烟, 欺凌凡草木, 筆跡尤奇妙, 僕嘗學之, 遇紙素屏幃無不揮灑, 自以謂得其髣髴, 故作詩云, ‘餘波猶及碧琅玕, 自恐前身文笑笑, 然僕誠不工, 僅得形似耳, 堂兄千林堂頭, 以紙屏求之, 僕但寫一枝, 橫跨四幅, 而不及葉, 有一畫史見之曰, ‘此枝節非庸流所能, 有東山墨戲風骨, 洒安八九葉於其間, 便有蕭然氣勢, 昔潘岳得樂廣之旨, 緝成名筆, 劉國之令, 東里猶潤色之, 今是竹也, 亦彫琢之餘盤薄之巧, 相資而成, 翛然若出於鑪錘之一手, 可謂疑神矣, 有識之者曰, ‘乾坤一氣, 胡越同心, 衆妙之極, 無跡可尋, 〃

하나만을 쓴 뒤 측면은 기하학문으로 장식하거나, 매화-대나무 식으로 동체 양면과 측면을 구성했다.^{도11} 뚜껑에는 희(囍), 수(壽), 복(福) 등 조선 후기 가장 많이 사용한 기복이나 염원을 담은 문자를 넣었다. 이는 입사로 장식된 담배합 전반에 나타나는데, 현전하는 동제 담배합 유물에서는 매화와 대나무가 한 공간에 완전히 혼합배치되어 장식된 사례도 존재한다.^{도12} 이러한 구성은 앞서 언급한 유득공의 『경도잡지』 풍속조(風俗條)에 등장한 철제은입사매죽문담배합에서도 전해져 당시 활발하게 사용한 문양배치 중 하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³⁸

3) 장생문(長生紋)

장생문은 장수를 기원하는 기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래 살거나 영원을 상징하는 사물을 장생을 상징하는 소재로 형상화해 십장생으로 구성하였는데, 해, 산, 물, 돌, 달, 구름, 불로초, 거북, 학, 사슴, 대나무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인간의 본능적인 염원인 장수를 상징하는 만큼 십장생은 조선시대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과 같은 건축물, 회화작품, 병풍, 도자기, 칠기, 화각 등 다양한 곳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장생의 세부구성은 시대문화, 제작주체 및 서술자의 인식, 제작물 등에 따라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장수를 상징하는 큰 틀 안에서 오래사는 생물, 관련 상징물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징적 의미는 동일하며 조선 전 시대에 걸쳐 사용되었다.



13
〈철제은입사담배합〉
조선 18~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후기에도 장수의 상징의미와 수요자의 염원을 그대로 지니고, 다양한 기종의 입사공예품에서 중심문양의 소재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기물에 시문해야 하는 공예품의 특성상 장생의 요소 모두가 시문되지는 않았고, 사슴과 학, 또는 거북이 등 일부 소재들이 각 면의 중심 문양으로 시문되었다. 이는 철제입사담배합 역시 마찬가지였다. 철제입사담배합

38 『京都雜誌』卷1, 風俗, 茶煙條, “…朝士必有煙盒 鐵鑄銀銅梅竹紫鹿皮綬并…”

은 동체 각 면에 장생문 각 요소의 소재를 갖춰 구성하기 용이했다. 이에 학과 거북이, 학과 대나무, 구름과 학, 소나무와 사슴 등으로 짝을 이뤄 한 면에 장식되었다. 중심문양의 공간에 다시 한번 구획을 한 뒤 그 주변을 기하학 등 보조문양으로 채우기도 하고, 면의 형태에 맞춰 구획만 한 뒤 장생문 만을 구성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제은입사담배합〉^{도13}은 현전하는 철제입사담배합의 장생문 구성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학과 바다를 노니는 거북이가 한 면 안에 배치되어 있는데, 위에는 원문에 가까운 운문을 반복 시문하고, 아래에는 반원형의 파수문을 시문해 한 공간 안에서 하늘과 바다에 사는 장생문의 소재를 동시에 구현했다. 이러한 구성은 기물의 공간 폭과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당시 수요자의 취향이 반영된 장생에 기물이 지닌 공간 효율을 최대한 살려 완성한 철제입사담배합의 문양배치와 구조 특성을 잘 보여준다.

4) 문자문(文字紋)

문자문은 철제입사담배합의 뚜껑과 동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양소재 중 하나이다. 문자문은 기물의 조성 배경 및 편년, 기물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용도, 장수, 기복, 염원 등 당대인들의 인식과 소망 등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당시 유행했던 문자문과 다른 문양의 조합 배치와 문양의 유통 경향 등 문자문에 내재된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를 추론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철제입사담배합에서는 수복, 길상문의 일종인 수복(壽福), 희(囍)를 위주로 확인된다. 이 소재들은 다른 기종 및 기법으로 장식된 금속공예품과 도자, 목칠, 직물 등 다른 공예 분야의 다양한 용도를 지닌 기물에서 다수 확인되어 조선 후기 사회에서 폭넓게 사용된 대표적인 문양 소재임을 알려준다.

수복, 길상문(吉祥紋)의 사용은 조선후기 문물의 소비문화와도 깊은 연관을 가진다. 조선 중기 상류층을 중심으로 향유된 회화 및 공예품에 배치된 기복적 성격의 문양은 조선 후기 부를 축적한 중인, 하급관리, 상인 등의 계층까지 확산되어 생활 기물에 반영되어 더욱 성행한다. 이러한 문양들은 입사공예품은 물론 가구, 도자기, 함 등 다양한 공예품에 시문되었다. 그중 수복문과 길상문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염원이었던 무병장수(無病長壽), 부귀영화(富貴榮華) 그 외 사회적 성향과 소망을 담은 문양이었다. 이러한 의미와 경향을 담은 수복, 길상문은 조선 후기 상품경제의 발달과 부의 축적으로 새롭게 부상한 소비계층이 선호했던 기복호사 풍조에 부합했고, 공예품 전반에 걸쳐 활성화되었다.³⁹



14
 <철제은입사연초합>
 조선 18~19세기
 국립진주박물관

15
 <철제은입사담배합>
 조선 18~19세기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담배합의 문자문 시문은 뚜껑과 동체 전체적으로 쯤음입사하기도 하고, 다른 곳 문자문은 쯤음입사로 시문하되 뚜껑 윗면 중심에 시문한 문자문만 끼움입사로 시문하는 경우도 있다. 최대한 문자가 잘 드러나도록 문자의 폭을 굵게 했으며, 문자의 필선을 살리는 사례도 있고 마치 직물의 금박도장과 같이 도식화 된 경우도 많다. 특히 희(囍)문과 수(壽)문, 복(福)문은 패턴화한 문자 도안이 유통되었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문양의 형태가 매우 규격화되었다.^{14, 15}

이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박으로 직물의 문양을 찍을 때 사용한 <원수문목판>, <복자문목판>, 베킷모에 자수를 놓을 때 사용한 목판인 <베킷모용 원수박쥐문 목판> 등의 유물을 통해서도 이미 이 문양소재들이 도안화되어 균일한 형식이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또 청화, 투각, 양각백자 등 도자공예와 나전칠기, 화각공예 등 조선시대 사용된 여러 분야의 공예품에서도 동일한 형식을 지닌 희(囍), 수(壽)문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왕실은 물론 민간까지 규격화된 도안이 존재해 기물에 적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⁴⁰

39 박혜원, 「조선말기 수복자문 청화백자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18-19.

40 김세린, 앞의 논문(2019), p.403.

V. 맺음말

17세기 담배의 조선 유입과 연초문화의 확산은 담배합, 담뱃대, 재떨이 등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물질과 문화의 향유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유입된 기물을 바탕으로 관련 물질문화가 형성되었지만, 점차 조선 내의 공예기술과 경향이 반영되면서 유입된 기물에는 조선의 문화가 입혀졌고,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철제입사담배합 역시 그중 하나였다. 연초문화의 성행에 따라 담뱃잎을 보관하는 담배합은 생활 필수 기물 중 하나로 자리했다. 흡연의 유해성이 알려진 지금과는 다르게 생활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향유된 연초문화는 관련 도구들 역시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휴대성을 갖춰야 하는 등 실용성이 필수였다. 여기에 사용하는 이들의 계층, 목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장식이 적용되어야 했다.

철제입사담배합은 조선 후기 성행한 공예의 장식기법인 입사의 쪼음입사로 장식된 기물이다. 기법의 특성상 단단한 물성을 가진 재료로 기물이 제작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에 금속 중 가장 단단한 물성을 지닌 재료 중 하나인 철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단단한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춰야 하는 담배합의 필수 덕목과 절묘하게 일치했다. 이처럼 내구성과 휴대성, 실용성을 겸비한 구조와 형태에 당시 유행했던 다양한 문양이 반영되어 조선 후기 사회 전반에 걸쳐 성행했으며, 현재도 많은 수의 유물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당시 유행했던 철제입사담배합의 입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조형과 양식에만 치우쳐 볼 수 없었고, 다양한 관련 자료와 배경을 살펴봐야 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당시 철제입사담배합의 소비 배경이 되었던 연초문화와 수요자, 재료의 사용 배경 등을 중심으로 해 철제입사담배합의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당시 폭넓은 계층과 공간에서 활용된 연초문화와 금속제 원료수급, 당시 유행했던 쪼음입사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철제입사담배합의 성행 배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현재 공예사 분석방식인 조형과 왕실 중심의 상징 분석의 측면을 탈피해, 근대 이전 공예가 생활의 필수품이자 소비자의 여러 목적에 따른 수요가 공예품의 형태와 의장에 필수적이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그 사례로 조선 후기 유행했던 연초문화와 그에 관련된 도구들을 ‘소비와 ‘쓰임’의 관점에서 비춰 보려 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연초문화만큼 사용되었던 도구가 다양했고, 그 양상도 뚜렷해 그 모두를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

다. 또 현재 담배합, 담뱃대 등의 제작기술이 국가무형문화재 입사장, 조각장, 백동연죽장을 중심으로 전수되고 있는 만큼 제작과 기술을 위주로 한 추가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위의 미흡한 부분들은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제어 keywords

담배 tobacco, 담배합 cigarette case, 연초문화 tobacco culture, 입사기법 metal inlay technique, Ipsa, 금속공예 metal craft, 꼬음입사 JjoeumIpsa

투고일 2019년 8월 25일 | 심사일 2019년 9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30일

사료

- 『各司謄錄 Kaksadeonglok』
 『經國大典 Kyeonggukdaejeon』
 『京都雜誌 Kyeongdojabji』
 『庚子燕行雜識 Kyeongjayeonhaengiabji』
 『谿谷漫筆 Kyekokmanpil』
 『薊山紀程 Kyesangijeong』
 『茶山詩文集 Dasansimunjip』
 『大典通編 Deajeontongpyeon』
 『無名子集 Mumyeongjajip』
 『星湖僊說 Seonghosaseol』
 『煙經 YeongKyeong』
 『熱河日記 Yealhailgi』
 『五洲衍文長箋散稿 Ohjuyeonmunjangjeonsango』
 『林園經濟志 Yimwonkyeongjeji』
 『林下筆記 Yimhapilgi』
 『典錄通考 Jeonloktonggo』
 『澤堂集 Taedangjip』
 『破閑集 Pahanjip』
 『荷齋日記 Hajaeilgi』
 『海行摠載 Heaheangchongjae』
 『弘齋全書 Hongjaejeonseo』

논저

- 고동환 Ko, Dong-Hwan,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Market Industry in the Chosun Dynasty』, 파주: 지식산업사, 2013, Paju: Jisik-sanup Publishing Co, 2013.
- 구혜인 Koo, Hye-In, 『조선후기 양각백자 연구 A Study on Yanggak White Porcelains of Late Joseon dynasty』,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김세린 Kim, Serine, 『조선시대 금속공예 입사 연구 A Study on the Inlay(入絲) of Metal Craft in the Joseon dynasty』,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h.D. Diss, Ewha Womans University, 2019.
- 박혜원 Park, Hye Won, 『조선폄기 수복자문 청화백자 연구 A Study of Blue and White Porcelain with Subokjamun in Late Joseon』,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이선진 Lee, Sun jin, 「조선후기 철제입사공예품 연구 A Study on silver-inlaid iron crafts in the late Chosun period」,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M.A. thesis, Dongguk University.
- 이옥, Lee, ok, 안대회 역, Daehoe Ahn trans, 『연경: 담배의 모든 것 YeongKyeong: Everything in Cigarettes』, 서울: 휴머니스트, 2008, Seoul: Humanistbooks, 2008.
- 정수일 Jeong, Su Il, 「실크로드사전 *Dictionary of Silk Road*」 디지털판, 파주: 창비, 2013. Paju: Changbi, 2013.
- 최경화 Choi, KyungHwa, 「조선후기 분원리 시기 관요백자 연구: 1752-1895년을 중심으로 A study on white porcelains produced in the royal kilns during the period of bunwonri in the late Joseon Dynasty: from 1752 to 1895」,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h.D. Diss, Ewha Womans University, 2014.
- 최응천 Choi, Eung-Chon, 『한눈에 보는 입사 *Ipsa: Korean Traditional Silver or Gold Inlaying*』, 서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6. Seoul: KCDF, 2016.
- 칼스, W.R. Carles, William Richard, 신복룡 역 Sin Bok-Ryong trans, 『조선풍물지 *Life In Corea*』, 서울: 집문당, 1999. Seoul: Jimoondang, 1999.
- 홍선표 Hong, Sunpyo, 『조선시대회화사론 *Joseonsidaehohwasolon*』, 서울: 문예출판사, 2004. Seoul: Moonye Publishing CO, 2004.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omepage: <https://www.nrich.go.kr>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National Museum of Korea Homepage: <http://www.museum.go.kr>

이뮤지엄 홈페이지 E-museum Homepage: <http://www.emuseum.go.kr>

Tobacco Culture and Silver-inlaid Iron Cigarette Cas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BSTRACT

Kim, Serine

One of the most recognized pieces of metal inlaid crafts of the Joseon Dynasty is those related to tobacco culture. Tobacco culture includes all the activities and activities surrounding tobacco and smoking, including the acts of smoking, the tools used to smoke, the works of smokers or literary works and arts on the subject of tobacco, and related cultures. The tobacco culture spread in the 17th century as the influx of ships to Joseon brought to the enjoyment of the unprecedented objects and cultures such as cigarette cases, cigarettes and ashtrays. One of them was the cigarette inlay made of iron analyzed in this paper. In accordance with the popularity of tobacco culture, tobacco cases for storing tobacco leaves have become one of the necessities of life. Since the tobacco culture was enjoyed in various spaces including living spaces, the tools used had to be practical. In addition, various decorations were used depending on the class, taste, and purpose of the people using the tools.

The iron inlay cigarette case is decorated with JJoemipsa(조음입사) of metal inlay, which is a decorative technique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cigarette case has a variety of patterns that were popular at the time in its structure and form that combines durability, portability and practicality. It was popular throughout the late Joseon society.

This paper analyzes iron inlay cigarette case focused on tobacco culture, consumers, and the use of materials.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fashionable background of the iron inlay cigarette case in which various factors worked.